

시공간 초월해 청년들과 선교사가 만났다!



SNS공동체 지체들이 러시아 장빛 선교사를 축복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 종료 청년 328명, 선교사 42가정, 선교사 자녀 39명 참가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가 종료됐다. 미션 커넥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여름 아웃리치를 대신해 현지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비대면 선교사역이다.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여름 아웃리치 시즌에 진행됐다.

청년들의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는 '블레싱 커넥트(Blessing Connect)'와 '튜터링 커넥트(Tutoring Connect)'로 나뉘어 진행됐다. 블레싱 커넥트는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다. 튜터링

커넥트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을 가르쳐주는 사역이다.

미션 커넥트에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328명(블레싱 커넥트 269명, 튜터링 커넥트 59명)이 참가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화상연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사역을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에는 20여 개 국가 선교사 42가정, 선교사 자녀 39명이 참여했다.

강가연 자매(W청년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여름사역이 멈춘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미션 커넥트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보살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다"면서 "미션 커넥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청년들과 선교사가 만난 정말 귀한 사역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단비 자매(요셉공동체)는 "매년 선교지를 방문해서 섬기는 여름 아웃리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고난 속에서도 미션 커넥트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에게

"그리움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0년 첫째 믿음(가명, 5살), 둘째 소망(가명, 23개월)을 데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태권도사역을 통해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온지 9개월 만에 셋째 사랑(가명)이를 선물로 주셔서 세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한국을 궁금해

하고 그리워합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어하고, 막연한 그리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분명 축복이고, 감사지만 부모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션 커넥트를 통해서 정말 귀한 섬김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매 시간 한국 선생님과 한국말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 역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리움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온누리교회 청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보내주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순종 선교사 부부(가명)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9월 27일까지 제출

공동체 순장 및 총무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필사지 제출 마감기한이 9월 27일(주일)로 연장됐다. 9월 27일까지 공동체 순장이나 총무에게 자신이 맡은 분량을 완료한 필사지를 제출하면 된다.

각 공동체 총무들은 성도들이 제출한 필사지를 성경 한 권으로 취합해서 10월 11일(주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교역자 및 장로, 예수제자학교(JDS), 공동체 소속 안 된 성도들은 9월 27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하는 프로젝트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 개인의 영성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했다. 완성된 성경필사지는 추후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도를 도와 드립니다!"

CGNTV 붓소핸섬 시즌3 시청자 사연 접수

CGNTV 유튜브 콘텐츠 붓소핸섬 시즌3에서 시청자들의 전도를 도와준다. 지난 8월 21일부터 방영중인 붓소핸섬 시즌3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거리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조셉붓소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접수 받아 전도를 돕는다. 전도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돕는 방식이다.

CGNTV 붓소핸섬 시즌3에 사연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이메일(butsohandsup@gmail.com)을 이용하면 된다. 사연신청자의 연락처, 전도대상자와 만남을 희망하는 일시와 지역, 전도하고 싶은 대상과 사연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인본주의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본주의는 초 자연을 부정하는 자연주의, 이성을 신뢰하는 합리주의, 과학적 방법만 인정하는 과학주의가 특징이다. 인본주의는 공립학교 교육내용을 장악한 존 듀이 같은 인본주의 교육

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확산되었다.

각 세계관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4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인본주의 세계관의 답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본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등 모든 것에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 같은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문제이다. 기원에 대한 그들의 설명 역시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단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이론이라는 그럴듯한 가설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과학적인 방법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기반을 가졌기에 초자연적 존재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화의 과정이 인간에 와서야 이성이 발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생명체로서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평가에서부터 하찮은 미생물과 다를 바 없다거나 마치 기계와 같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하다.

두 번째,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개개인은 선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그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며,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모두가 선하다면 어째서 인간 사회가 악하게 되었는가?"라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인은 인본주의자들의 이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환경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가 사회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의 문제해결책은 사회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작은 사회는 더 큰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 혹은 지구촌 전체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세계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제안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기 쉽다. 인본주의자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제시한 이상이 잘 실현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고백하지만 낙관적 이상주의의 태도는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

네 번째,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본주의자들은 자연주의, 과학주의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도 다른 생명체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신호를 나타내는 심전도, 호흡, 혈압 등이 모두 정지하는 죽음이 다치면 인간의 세포 사이 신호교환도 사라지고 결국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을 뇌세포 사이의 신호전달 결과로 발생한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교환의 상실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여긴다.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스스로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에 자신감을 얻은 인간들이 하나

님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며, 니체의 표현처럼 스스로 신을 죽이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한 것이 인본주의의 정체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는 길은 사사기의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원죄의 정체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하는 교만함일 것이다.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 인본주의에는 윤리의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다. 터너 방송사(CNN, TNT, TBS 수퍼스테이션 소유)의 전 CEO였던 테드 터너는 "기독교는 패배자들을 위한 종교다.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해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계명은 인간을 쓸데없이 얽매는 굴레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본주의자들은 공교육과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들도 인본주의 공교육을 12년 동안 받아왔다. 우리를 개인과 교회와 가정 속에 몰래 들어온 인본주의 영향을 더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진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세속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오직 그 내용이 성경과 복음에 합치되는가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묵상: 나의 세계관 속에 오염되어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분별해 보자.

전도, 이렇게 합시다!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전도자에게도 축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부담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함께했던 동반자 집사님 부부들과 식사모임이 있었다. 내가 전도학교 담당 장로인 것을 알고 한 집사님이 "장로님, 전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래전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전도가 교회에서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렵고, 더럽고,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3D 업종을 전도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전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결론이 있다. 그것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이다. 나는

주체가 아니고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전도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단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생각하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흔히 전도지를 나눠 주거나 복음메시지를 전해야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요 14:6).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을 간증을 통해 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된 말씀(메시지)으로 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것이다. 나 역시 항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전도대상자인 환자의 손을 잡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주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 나와 가족 또는 주위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도 하며, 시간이 허락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메시지로 전한다. 내 일

굴이 전도지라는 말이 있듯이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진다.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다. 우리 공동체에는 20년 넘게 '살롬의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매일 봉사하고 있는 최 집사님 부부가 있다. 그 부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마지막 주에 살롬의 집을 찾아가간다. 권사님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에는 남편 최 집사님 혼자서라도 간다. 이 부부는 이웃들을 찾아가 식사 준비와 청소를 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 사랑이 주변으로 물들이 지금은 우리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봉사하고 있다. 어느 날 순예배 중에 최 집사님이 "전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

는 최 집사님 부부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전도자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든, 예수님의 능력을 간증으로 전하든, 메시지 선포를 통해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다. 매일 집중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전도에 대해 더 깊게 배우고 싶은 성도들에게 온누리전도학교 강의를 추천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9월 11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유튜브에 전도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이 등록된다. 아무때나 자유롭게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전도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 전도학교,
'날마다 111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느헤미야 2:1~10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은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과 비전을 품고 기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많은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했을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사람과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꾸고 있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단지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었고, 성벽이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은 가슴에 다시 불을 일으켜서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어려운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묶여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서 왕의 허락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왕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왕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되고, 왕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역사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유혹은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 직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즉시 왕에게 달

려가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는 기도가 응답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충실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사 62:6~7).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오늘날 월력으로 환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우리식으로는 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입니다. 기슬월은 오늘날 월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겨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증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발견할 만큼 근심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슬픔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계속 되는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슬픔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슬픔은 곧 잊어버리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때

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느 가나안 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웁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고, 또 소원의 진정성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에게 “가라. 네 딸이 치유되었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 줄 수 있었는데 왜 침묵하고 거절하고 시간을 끄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간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슬픔을 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2~3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느헤미야에게 깊은 관심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술 관원의 안색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술 관원의 안색에 어떤 감정적인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은 늘 술 관원의 안색을 살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였을 리는 없습니다. 느헤

미야는 그동안 왕 앞에서는 그저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직무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술 관원이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감정을 표현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할 때는 아무리 좋은 표정을 지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척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발견은 하나님 은혜로운 손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아닌지 낙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분별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슬픔의 이유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한 예배의 마음, 그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대화할 때 지혜로우야 합니다. 뱀은 위험을 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뱀은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매우 빠르게 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야 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희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내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자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 ‘생각의 전환’과 ‘규칙적인 생활’ 코로나19 + 우울감(Blue)

30대 주부 A 자매는 요즘 버릇처럼 한숨을 쉰다. 오전 10시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도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일주일째 외출도 못하고 있다.

A 자매의 일상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 증상이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다. 코로나19에서 기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증상은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 탈모, 어지럼증, 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라는 생각의 전환과 규칙적인 생활에 그 해답이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아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여유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소중하지 못했던 일상이 멈추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 제발 하루만 쉬고 싶다고 소원했던 학교와 일터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었다. 교회에도 갈 수 없다. 예배도,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나눔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여유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가볍게 지나치던 기침만 하더라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도 부쩍 줄었다. 혹시나 감염되거나 감염시킬지 몰라 불안하기 때문이다.

일상 무너지고, 신앙 흔들리며 “더욱 날카롭고 극단적인 반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불안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동료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걱정보다 인상을 먼저 찌푸려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아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들도 더 많이 목격하

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건강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8월 25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건수가 올해 2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40만3,432건이나 된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 알비콜(아르바이트 어플)에서 최근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추이변화’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중에서 69.2%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결과(54.7%)보다 무려 14.5%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조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엠브레인(시장조사전문기업)에서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코로나 블루’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위에도 더욱 날카롭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답자 과반 이상(53.2%)이 “요즘 제대로 된 외출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에 따른 증상으로는 ‘신경이 예민해진 편(38.1%)’,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 외롭고 쓸쓸하다(31.9%)’고 호소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게 되고, 교회모임이 중단되었으며,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면서 우울감,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많아졌다.

K 형제(SNS공동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지만 전과 같은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염려했다.

K 형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다. S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으면서 “신앙이 무너지니까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했다.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기 건강한 마음 챙기는 두 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건강한 마음을 챙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의 전환’과 ‘규칙적인 생활’이 열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된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몹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백신이 될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질서가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필요한 만큼만 보고, 실내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좋

다.

무엇보다 나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공포, 고립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타인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S 자매도 순원들의 격려와 위로, 기도 덕분에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몇 주 만에 용기내서 들어간 온라인 순예배에서 순장님과 순원들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셨거든요. 한 순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쓴 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만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소통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 매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피시고, 참 위로와 소망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다. K 형제가 바로 그 경험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을 챙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개인영성관리를 위하여 가정예배, 에스라 프로젝트, 말씀통독, 온라인 양육 과정,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순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 이웃사랑 실천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으며, 회복되는 성도들의 간증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8-9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우리는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걸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 분명 이 위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 기고

코로나 블루와 크리스천의 자세



차준구 장로
(정신과전문의,
양지 온누리교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일 반복되는 평상시 일상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심하게 흔들렸거나 이를 견뎌야 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기분장애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와 정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코로나 블루는 격리 치료중인 감염자, 자가격리자, 격리자나 감염자의 가족, 의료진 등 평상시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과 치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공포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과 불안, 두려움, 분노, 짜증이 많아지는 정서 불안정,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러운 인지장애 등이다. 이외에도 만성 피로, 관절통증, 가슴통증, 후각·미각 장애, 탈모, 가래, 우울증 같은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강박장애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상과 후유증은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에서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회복 후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과 감염 공포증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블루의 핵심 감정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공포를 느끼는 크리스천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주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일이 가장 슬프고 우울하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순예배 참석을 못해서 다른 교우들과 만날 수 없는 것과 비대면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가지 못해서 영적생활이 침체되어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울적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립상태에 놓인 노인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노인들은 자녀들이 집에 오지도 않으면서 매일 전화로 하는 “어디에 가지 마라”, “누굴 만나지 마라”, “어떤 행동은 하지 마라” 등의 부탁을 들으며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하며,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답답한 마스크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피하게 되고, 누가 무증상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안하고, 매스컴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짜증이 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지치고 우울하다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핵심 감정은 불안, 공포, 우울, 분노다. 이 핵심감정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폭

침입한다.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5~7일이 걸린다. 바로 이 기간이 무증상 감염 시기이다. 이때 약 40%의 전염력을 갖는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같은 기본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손 씻기와 거리두기가 1차 방어선이라면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또한 심리적 방어선이다.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턱에 걸치거나 코가 나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로 침입하도록 문을 활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영적 능력 키우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다.”

력, 고립 등과 같은 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제안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의 핵심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원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빨리 적응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변종으로 변장을 하고 공격을 해서 잡기가 매우 힘들다. 세균처럼 스스로 생존능력이 없는 바이러스는 생존하기 위해서 숙주 속으로 침입하여 증식을 한다.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호흡분비물, 소화분비물, 혈액 및 상처 등을 통하여 숙주의 몸 밖으로 배출되어 근처에 있는 다른 숙주에

짜 열여 놓은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을 지키는 방어를 잘 해야 한다.

둘째, 언택트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언택트 생활은 이미 시작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비밀감염이라고 하지만,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밖으로 나오면 공기 중에도 꽤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마스크 앞면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는 7일 동안 생존한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게 되고,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건물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언택트 문화가 활발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언택트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도 이에 맞춰 영상예배, 영상 순예배, 영상 양육모임, 영상 일

대일제자양육 등과 같은 비대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상식과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통제력 키우기

셋째, 올바른 상식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소외당할 때 우울감과 분노를 경험하고, 그 분노는 뇌의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폭발한다.

확진자 A는 완치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회복이 된 기쁨보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기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확진자 A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생존 자라기보다는 전파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많은 완치자들이 일종의 ‘낙인효과’ 때문에 사회에 다시 섞이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한다. 보건전문가들은 완치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지만, 워낙 공포가 큰 탓에 가족과 친지조차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소외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괴감과 분노가 흔적으로 남게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상대에 대한 관심 배려가 소외감을 극복하게 한다.

넷째, 통제력을 키워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잘 통제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매우 불안정해진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통제가 안 되어 당황하였지만, 결국 통제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지낸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최대한 방어를 하고, 방역당국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방역 방어망이 뚫려서 여러 지역에서 n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 후유증으로 학교가 폐쇄되고, 대중이 모이는 집회가 중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방역 2단계나 3단계가 언급될 때마다 불안과 분노도 증폭된다. 우리는 불안과 분노가 행동화 되지 않도록 통제력을 키워야 한다.

크리스천이 불안정한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시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군부대와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온누리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이웃사랑이 교계는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전도사역본부 군선교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고, 예배조차 드리기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군교회를 돕고 있다. 언택트 사역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매체를 활용한 예배방법을 전수하고, 영상장비 세트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은 유례없이 긴 장마에 큰 수해를 입은 농어촌교회들을 성심성의껏 도왔다. 온누리교회의 작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구례섬진강교회가 물에 잠긴 가전제품과 집기 등 쓰레기를 걷어내며 수해복구작업에 한창이다(좌). 지난 8월 11일 군선교팀과 CGNTV가 후원한 '언택트 사역자 양성교육' (우),



농어촌선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례섬진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윤찬 목사입니다. 구례섬진강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섬진강 상류에서 흘러보낸 많은 양의 물이 교회와 사택을 침범했습니다. 미리 대피했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회 건물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당에 있던 대부분의 전자제품, 음향기기, 에어컨, 온풍기 등이 침수되어 망가졌고, 장의자와 매트들이 진흙과 함께 뒤엎겨 널브러졌습니다. 사택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이재민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현실에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게 바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었습니다. 수해 발생 5일 만에 담당 장로님을 비롯한 농어촌선교팀원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저에게 복구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일단 전

국 각지에서 온 믿음의 봉사자들과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진흙을 걷어내고, 폐가전과 가구 등 쓰레기(15톤 트럭 5대 분량)를 치웠습니다.

그 다음 복구 작업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필두로 진행됐습니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닥과 벽체를 잘 말릴 수 있었습니다. 도배장판도, 사택과 교회 페인트 작업과 외벽 방수 작업도 거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기술과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작업 과정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감격에 겨워 눈물 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데 온누리교회가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짐에 온몸 속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기도와 재정을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기록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힘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강윤찬 목사(전남 구례섬진강교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군선교 현장을 기억해주시고,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속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기도 참으로 힘든 실정일 텐데,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적시적(適時的)이고, 실제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군교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와 온라인 사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상황을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면서도, 그렇다고 군선교를 멈출 수는 없었기에 잊몸으로 버티다시피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마련해주신 ‘언택트 사역자

양성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 언택트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장착해야 할 목회적 소명과 패러다임까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언택트 사역자 양성교육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적 채움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장비 세트까지 지원해주시다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론과 실제의 영역에서 이렇게 실효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배려와 센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신 온누리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산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군선교 현장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지원해주신 영상장비를 통해 더욱 힘을 내서 예수복음을 증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현 목사(75사단)

군선교

“어려운 시기 활로를 찾았습니다”

필승! 공군춘천금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훈 목사입니다. 이번에 지원해주신 방송장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장병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할수록 군종장교들의 마음이 위축되는데 온누리교회의 든든

한 지원 덕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장병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시기 활로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군선교의 결실이 각 교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 필승.

/ 김영훈 목사(공군춘천금성교회)

“군선교의 마중물”

충성! 종합보급창 문은균 목사입니다. 장비 이상 없이 잘 도착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 했을 때 해보지 않았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생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유행 전에 언택트 사역자 양성교육을 받았고, 온누리교회에서 장비도 지원해 주셔서 두려움보다 형제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

바라기는 좋은 교육과 장비들이 전체 군인 교회에 전달되어서 코로나19 시대 군교회가 사역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작은 파견지에 가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비를 활용해서 GOP나 해안초소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섬김과 후원이 군선교의 마중물이 되어서 군인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문은균 목사(육군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경필사 '에스라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신주희 성도도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시편 13편부터 16편까지 써냈다. 다른 성도들의 필사 범위에 비하면 분량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에게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글씨가 뽕뽕뽕한데 괜찮을까? 에스라 프로젝트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신주희 성도는 그 누구보다 정성 들여 필사했다. 그 마음과 정성 자체만으로도 귀감이었다. 신주희 성도의 글씨도 절대 악필이 아니었다.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귀엽고 힘이 느껴졌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신주희 성도의 새로운 꿈과 희망

신주희 성도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의학적으로 장애의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것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다. “어머니께서 저를 9개월 만에 낳으셨는데 당시에는 8개월보다 9개월에 태어나는 게 더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고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저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신주희 성도는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녀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그녀가 처음 교회에 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당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학년 후배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게 신앙의 첫걸음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후배 어머니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어린 마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의 장애를 파스하게 바라봐줬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파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 좋았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정말 좋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책도 읽었지만 도무지 와 닿지가 않았다. 그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간 수련회에서였다.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만든 건 실수가 아니다. 너의 장애는 내가 일부터 준 것이다. 너를 쓰려고 일부터 장애를 준 것이다’는 음성이었습시다.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장애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였지만 신주희 성도의 마음이 달라졌다. 장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신주희 성도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활짝 웃고 있다.

감사했다.

부천 온누리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에스라 프로젝트

신주희 성도는 부천 온누리교회에 감사하게 참 많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한 것은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이기 때문이다. 신주희 성도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원에서 부천 온누리교회를 만났다.

“8~9년 쯤 된 것 같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느라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시다. 마침 제가 입원해있던 병원에 부천 온누리교회 예배팀이 오셔서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천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시다. 등록도 안 한 저를 위해서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팀까지 꾸려서 도와주셨습시다.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가 데려다 주고, 교육 받는 일도 참 많이 도와주셨습시다.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시다.”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컸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제가 손이 불편하고,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어렵거든요. 괜히 제가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냈습시다. 제가 한 주에 말씀 한 구절씩을 적어서 SNS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순장님께 보내서 이 정도 글씨면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가 가능할지 여쭙했습니다. 순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신주희 성도가 맡은 필사범위는 시편 13편부터 16편까지였다.

“틀리지 않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조심스럽게 썼습시다. 비장애인들은 틀리면 쉽게 다시 쓸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필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범위가 많지 않아서 3~4일 만에 필사를 마칠 수 있었습시다. 그 과정에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덩으로 받았습시다.”

다.”

〈소망구두〉작가 그 이름 신주희

신주희 자매는 작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그림에세이 〈소망구두〉(그로우업출판사)가 10월 중에 출판될 예정이다. 현재 책 출간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소셜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을 활용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이 진행 중이다.

〈소망구두〉에는 그녀의 장애, 학창시절, 교회 이야기, 취업, 상처와 고민들, 현재 이야기까지 그녀의 회상과 고백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겨있다. 신주희 성도의 눈물겨운 간증에 그녀가 틈틈이 그린 따뜻한 그림이 더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제가 작가 데뷔를 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제 책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고요. 샘플을 보면서도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것도, 책을 출판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바라는 건 제 책이 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주희 성도를 만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다. 새롭게 배운 것도 많았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신주희 성도는 지금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있다. 장애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망구두〉 크라우드펀딩
<https://youtu.be/0kv4IMyAduA>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올해 시작을 알리는 날 나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면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말씀을 얼마나 곁에 두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부끄럽게도 말씀을 읽기 위해 내 인생 십분의 일도 시간을 내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하고 성경일독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성경일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자만의 다짐은 흔들리기 쉬웠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에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신약) 과정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을 신청했다.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했지만 '내가 과연 8주를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왔다. 초과근무와 출퇴근 교통상황 등 여러 변수들이 우려되면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우려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비전통독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마지막 8주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배움으로 채울 수 있었다.



진성미 자매는 비전통독(신약)을 수료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8주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성경을 볼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편애하며 읽던 습관이 달라졌다. 하나님과 나의 소통 도구로써 성경을 바라보던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배경과 그 나라 문화 등을 이해하고,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는지 등 보다

넓은 시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강의는 끝났지만 이 기운을 받아 다시금 성경일독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구약통독을 하고 있다. 신약만큼 풍부한 배경지식은 아니지만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서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에 도전했던 것 자체가 나에게 그 감사한 시간이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시간이었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기회였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말 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에서 얻은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다음 발걸음을 떼어야겠다.

8주 동안 내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윤식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매주 성경읽기를 체크해 주셨던 서상연 조장님께도 감사를 전한다. 이번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날마다 꿀같이 단 말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 진성미 자매(W청년부)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성경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라왔다. 스스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적인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 같았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또한 삶에 문제가 닥치고 길이 막히는 것만 같을 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라며 대화하기보다는 내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경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숨겨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수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링크순



이준서 자매는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들으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장으로 순원들에게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40일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수업을 들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듣게 되었다.

나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다 듣고 나서 누군가 내게 "어떤 내용을 배웠

느냐"고 물으면 구체적인 답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듣다가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면서 성경을 안다고 자만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성경에 낯생 처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강의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생소했고, 흐름을 따라가기에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제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이 끝난 뒤부터는 허브공동체 친구들 몇 명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한 주에 성경인물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인물과 관련된 성경부분을 읽고, 그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방식의 성경공부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다.

내가 삶에 혼란을 느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종종 흐려졌던 것도 결국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 수강을 계기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 이준서 자매(허브공동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코로나19, 가정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아빠.가. 출연 간증

우리 부부는 가족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강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수강생들이 공방에 오고 싶어 해도 양해를 구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둘만 있는 시간이 늘었다. 자칫하면 이 시간을 힘들게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부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

이전에도 우리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를 나누고, 가족공방에 출근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큐티를 나눴다. 아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잘 짜인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었다.

그즈음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하 아빠.가.) 출연제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가정예배를 더 잘 드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 4주 연속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족공방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세족식 때 서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이준영 성도와 문경희 집사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공방이 말씀과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고스란히 밀려왔다. 12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다. 통통한 내 발과 달리 아내의 마른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찡하게 아파왔다. 코로나19로 힘든 아내를 잘 다독이고 마음 편하게 해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늘 나에게 정성을 쏟아온 아내의 지난날들

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자주해준다. 아내가 맛있게 먹어주고 감동해줘서 고맙기만 하다. 평생 서로를 살피주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린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막상 해보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성도들이나 지인들에게 가정예배와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지금 힘들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가정예배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가정예배 순서나 찬양 설교 등이 어색할 수 있다. 그때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큐티를 나누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대신하기도 한다. 매일 큐티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처음엔 아빠.가.를 시청하며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규칙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늘 도전이 된다.

늘 우리 부부가 머무는 가족공방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준영 성도, 문경희 집사(서빙고공동체)

* CGNTV 아빠.가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특강 '구약과 신약 사이'

아웃리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다양한 주제로 여름방학특강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내가 속한 W공동체 김윤식 목사님의 특강 '구약과 신약 사이'를 수강했다.

이번 특강을 듣기 전에 떠오른 단어는 '생소함'과 '기대감'이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을 침묵기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생소했다. 기존에 알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배운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첫 번째 강의는 헬라제국 편이었다. 헬라 제국의 형성과 분열, 새로운 왕조들의 출현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부분이 70인역 성경이 집필되어 신약시대 사람들이 더욱 쉽게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강의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내용이었다. 유대인 탄압정책이 극심했던 셀로우코스 왕조에 대항한 유대의 마카비 항쟁과 성전을 복원한 이후 하나님께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수전절의 유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유대교 분파 발생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웠다.

세 번째 강의는 로마제국 이야기였다. 로마



손형탁 형제가 여름방학특강 '구약과 신약 사이'를 듣고 있다.

의 제국화 과정과 주요 인물, 신약시대 초기 이스라엘 상황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네 번째 강의는 헤롯 왕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총 6명의 헤롯 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특강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자연스레 요셉의 삶이 떠올랐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져 이집트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

고, 결국 그를 통해 그의 형제를 포함한 70명의 가족들이 고센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요셉의 안타까운 상황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를 예비했고, 요셉을 사용해서 변성할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길을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창조자이며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자신감과 함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1년'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씩 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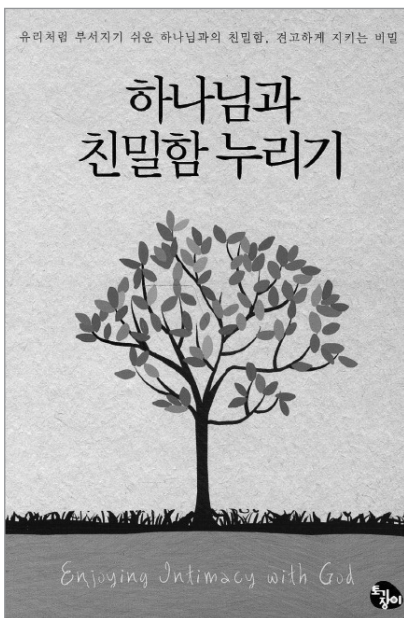
/ 손형탁 형제(W공동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책 읽어주는 목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적 삶의 기초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J. 오스월드 샌더스 저 | 토기장이
| 10,000원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씩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방식은 구매와 소비방식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 73:28).

코로나 시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그 뜻대로 심판하시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의 운전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친밀함의 깊이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싶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OMF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오스월드 샌더스도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영성이 중요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나누었고, 그의 얼굴마저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던 모세 이야기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그 깊은 사랑을 시와 노래로 지어 부르며 마침내 삶이 예배가 된 다윗 이야기는 독자들을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 앞으로 인도한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적 삶의 기초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시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벧후 1:4).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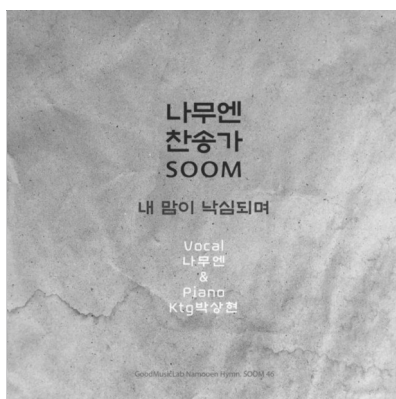
보실 때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신원석 목사
(동대문중앙공동체, NGO 더멋진세상)

기독교 음반

생명과 호흡을 담아 부르는 찬송



‘나무엔 찬송가 SOOM:숨’

CCM 아티스트 나무엔이 재즈 피아니스트 KTG 박상현과 함께 찬송가 앨범을 발매했다. 그 이름은 ‘나무엔 찬송가 SOOM:숨’이다. 한 음 한 음 생명과 호흡을 담아 찬송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싱글 앨범 ‘나무엔 찬송가 SOOM:숨’에는 ‘내 맘이 낙심되며’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다. 재즈 피아니스트 KTG 박상현은 나무엔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동역자다.

CCM 아티스트 나무엔은 “찬송가 ‘내 맘이 낙심되며’는 신앙과 일상의 괴리와 조우의 반복과 그 사이에서 느끼는 좌절과 인간의 연약함을 노래한 찬송”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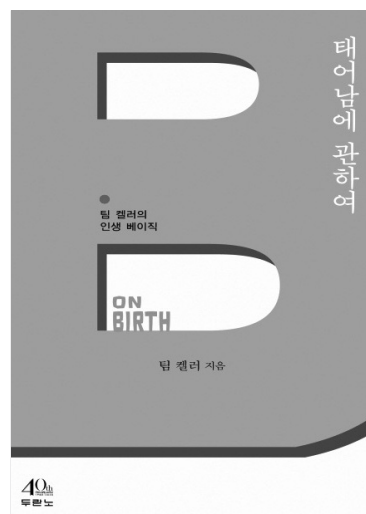
“낙심은 예수께서 주신 기쁨의 반대편에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낙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

지 말라 하심의 말씀을 받아 들고 설움에 눈물이 복 받치던 경험을 지나고 보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파도를 넘는 것 같은 사람의 일생을 예수님 안에서 잠잠히 말씀과 노래에 담아 부릅니다.”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나무엔 찬송가 SOOM:숨’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두란노 신간

기독교인은 두 번 태어난다



〈태어남에 관하여〉
팀 켈러 저 | 두란노 | 7,000원

흔히 기독교인들은 육과 영으로 두 번 태어난다고 말한다. 출생으로 맺어진 가정과 거듭남으로 맺어진 교회는 각각 어떤 책임이 있을까? 팀 켈러는 저서 <태어남에 관하여>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몸과 영적 태어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이후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팀 켈러는 최근 자녀교육법을 염려하고 있다. ‘부모의 가치관을 떠나 자녀만의 진리대로 살라’는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팀 켈러는 부모와 교회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문명과 문화를 다방면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뿐 아니라 이 세대를 사는 우리까지도 속속들이 변화시킨다. 이 일에 어찌면 당신이 여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곧 부모가 될 성도들, 신앙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장로들의 간구”

하루 세 시간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



지난 3일 정병균 장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릴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중보기도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세 시간씩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는 오전 8~9시, 오후 1~2시, 오후 7~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이어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를 한다.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는 회개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온누리교회 협력기관(CGNTV, NGO 더멋진세상, 한동대

학교 등)을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조항진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 교회가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고 제언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평택 토요주일에배 시간 변경

9월 5일부터 오전 10시 30분

평택 온누리교회 토요주일에배 시간이 변경된다. 9월 5일(토)부터 오전 10시 30분에 토요주일에배를 드린다. 평택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실황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3일부터 제1회 ‘온맘 성경통독’ 과정을 시작했다. 오는 12월 2일(수)까지 신약성경을 통독한다.

신동식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토요주일에배 시간 변경과 제1회 온맘 성경통독(신약)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성령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생활전도가 일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대청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CDC,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Why Mission?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 수강 과목은 필수과정 ‘CDC’, 선택과정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Why Mission?’ 이다.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는 9월 16일(수)부터 11월 11일(주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등록 세례교인으로 교역자 추천을 받은 청년이다. 영상 보고서, 사백예배 20회, 큐티일기 30회 등의 과제가 주어진다. 회비는

무료

‘Why Mission?’ 은 9월 16일(수)부터 11월 11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수강을 위해서 <Why Mission?> (두란노) 교재를 꼭 준비해야 한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는 9월 16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다. 교재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두란노)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02-3215-3759

각 공동체 담당교역자

두란노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전화로 받고 있다. 또한 두란노서점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www.duranno.com/store/onnuri)’를 개설했다. 1만2천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정기구독:

서빙고 010-3301-1159

양재 010-8741-8076

온라인 스토어: 02-796-2310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어머니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9월 어머니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멘토와의 티타임’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신청 받아 멘토가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2학기 온라인 특강

공감과 소통, 창조, 전도, 돈, 가정, 리더십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다. 김지홍 장로 ‘공감과 소통’, 이은일 장로 ‘지혜로운 창조신앙’, 장경문 장로 ‘온누리 전도학교’, 정진호 장로 ‘돈 Money Matters to god’, 김성묵 장로 ‘성경적 가치관’, 홍성호 장로

‘크리스천 리더십 코칭’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2학기 특강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온라인 개강

‘비전통독’, ‘성경적 성교육 202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비전통독’과 ‘성경적 성교육 2020’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비전통독 세미나는 9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목표다. <비전통독>(두란노)의 저자 조상연 목사(쥬이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

‘성경적 성교육 2020’ 세미나는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음세대 올바른 성경적 성 가치관을 세우고, 성경적 성교육을 감당하는 코

리스천 양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의 방향성과 핵심’, ‘기독교 가정의 음란물 예방교육 및 자녀의 영적근력 키우기’ 등을 주제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강의 영상은 주차별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내 강의’를 클릭하면 수강할 수 있다.

문의: 비전통독 02-2078-3456

성경적 성교육 02-3078-3265

NGO 더멋진세상, 부르키나파소 긴급구호

국생마을 160가정에 쌀과 식용유, 설탕 등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8월 26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긴급구호에서는 국생마을 160가정에 쌀과 식용유, 설탕 등을 지원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까지 겪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현지 사역자는 “기독교에 대한 배척 때문에 지난해 진행했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정들이 이번 코로나19 긴급구호를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 김영선 기자

제1기 이스라엘선교학교 ‘Why Israel?’

10월 17일~11월 21일, 유튜브 실시간

샬롬이스라엘이 주최하는 제1기 이스라엘선교학교 ‘Why Israel?’ 세미나가 개강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제1기 이스라엘선교학교 ‘Why Israel?’에서는 주제 강의와 조별 나눔 및 교제가 이어진다. 주제 강의는 유튜브 실시간, 조별 나눔 및 교제는 별도의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참가신청은 샬롬이스라엘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shalomisrael.or.kr), 카카오톡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교재비 및 교재 발송비 포함).

샬롬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이스라엘 선교팀이다. 류모세 목사(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가 담당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샬롬이스라엘 기도모임을 유튜브 ‘Shalom Israel Prayer’ 채널에서 하고 있다.

문의: 010-8550-7930

■ 온누리복지재단 직원의 간증



/ 엄재홍 부장(반동코이노니아)

15년 전,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반동코이노니아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훈련과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아이টে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초창기부터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이 이렇게 활용됐던 것은 아니었다. 20여 년 전, 반동코이노니아의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치료와 여가를 위해서였다. 작품 활동을 계속 하던 중 그림을 지도하던 봉사자와 담당자들이 작품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예수(예수님의 손길, 예술가의 손길)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였다. 현재는 다양한 아이টে에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이 활용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은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자부심으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큰 감동을 준다. 일례로 자문을 해주시는 어느 미대 교수님께서서는 그림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자기가 배워야겠다며 감탄 하셨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속적인 도움을 주셨다. 판매처가 늘어나고, 다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그리고 자립

양한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며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예수 친구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치기도 한다. 2019년 봄, 예수의 한 발달장애인은 미열과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예수가 넘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공장을 나가던 어머니는 치료비 걱정에 근심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우선 입원 치료에 필요한 긴급의료비 200만원을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했고, 개인 및 단체 후원 결연으로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다는 말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람이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른 재단에서 같은 사업을 구상한다며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지원과 시간 그리고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술도 장애인들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립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통로로 반동코이노니아가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 온라인 OBC 로마서 참가자 간증



/ 손정현 성도(평택 온누리교회)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을 마치며 가장 큰 감사는 나의 조건과 노력,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 대한 역사적, 교리적, 개인적, 경험적 고백이 강조됨으로 죄에 대하여 나의 옛 자아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도전을 주는 말씀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에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방해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기를 배웠다.

또한 바울과 하나님의 친밀함에 고무되었다. 바울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해 큰 그림과 치밀한 전략을 세우며 로마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과 다양한 계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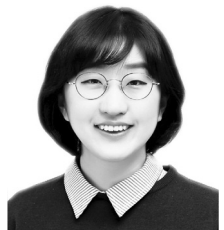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

책망하고 교육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믿음의 정도에 따른 성도 간의 갈등을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책망과 권면, 신뢰와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바울의 열정과 사랑에도 감동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며 믿음으로 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롬 1:16-17).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의의 병기가 되어 삶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받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방인의 수가 차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자 간증



/ 윤다솜 성도(이촌공동체)

지난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일을 시작한 이후 가장 힘든 시기였다. 10년 동안 별 탈 없이 직장을 다녔기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황당함과 분노, 절망과 좌절의 감정만 남았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핑계로 애써 무시했던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받지 않으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3-4살 때부터 충신교회 아가학교를 다녔고, 주일에는 나들이보다 교회 가는 것을 우선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교회로 옮기고 나서 성가대에도 참여했고, 수능이 끝난 뒤에는 친구와 고등부에서 세레도 받았다.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로 유아부 선생님이 몇 년 동안 했다. 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굳이 어딘가에 소속될 필요가 있나 교회에 매이는 것은 부담스러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피할 수 있었던 핑계거리가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신청했는데 그 과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직장

믿음이 한 뼘 더 자랐다

도 그만뒤 짜증나는데 큰맘 먹고 신청한 일대일제자양육도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육자 선정에만 몇 주가 지나는 등 단계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비슷한 포래를 찍지어준다는데, 양육자님은 엄마보다 4살이 어린 집사님이셨다.

약 6개월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치유와 기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경말씀 뿐 아니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집사님을 통해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다. 내게는 꿈인지 환상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선명한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있다. 예수님과 손 붙잡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본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 앞에 눈이 부셔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큰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데, 왜 아직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믿음은 왜 또 흔들리는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간증



/ 강은영 성도(하모니공동체)

우리 모두는 세상의 교육을 들으며 자랐다. 진화론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과학에 반하는 창조론은 신화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며 세상의 이론이 얼마나 거짓이고, 헛된 신념인지 알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과 강의가 창조의 모든 것을 증명했다. 내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확실한 자료와 믿음이 생겼다.

과학에 무지한 나는 창조론 속에 진화론이 있는 줄 착각하기도 했다. 학창시절에도 설마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할까 생각하며 진화론도 하나님의 증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진화를 한다면 지금도 진화과정 중인 사람이나 동식물이 있어야 하는데, 몇 천 년 동안이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학, 특히 곤충과 동식물에 집착하는 아들이 있었기에 마음이 더욱 급해지고 고민되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론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러다 아들이 아침에 눈 뜰 때 창조과학 유튜브를 틀어주기 시작했다.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영

“하나님, 나는
주의 작품입니다!”

상을 보곤 했다. 그런데 영상을 찾아보고, 틀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배우고, 전하기 위해 창조과학 강의를 찾아 보았다. 늘 창조과학에 관한 강의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예배준비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기회가 생겼다.

과학자와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창조는 사실일까?’라는 물음이 ‘창조는 사실이다’라는 확고한 답변으로 바뀌었다. ‘진화는 정말 거짓일까?’라는 의문도 ‘진화는 정말 거짓이다’라는 답을 내렸다.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믿는 대로 보였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온전한 형태로 나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 나는 주의 작품입니다!”

창조과학 강의를 들으면서 나와 내 가정의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일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장로의 길을 묻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나이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꽃다운 얼굴은 한
철에 불과하나
꽃다운 마음은 일
생을 지지 않네
장미꽃 백 송이는
일주일이면 시들
지만
마음 꽃 한 송이는
백년의 향기를 내
뿜네...

(김수환 추기경의

시 ‘마음꽃’ 중에서)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가 언제일까? 아무래도 노년기 삶이 아닐까. 유소년기와 청년기는 부모나 가정형편의 지배를 받고 타고난 기질이 좌우된다. 그래서 서툴고 설익어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0~50대 장년기 삶은 자신만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시기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해낼 의지와 용기를 갖고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멈추고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끝없이 두들기고 행하면 문이 열리고, 미담의 길을 찾다보면 기회가 온다.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자. 다윗은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 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시 18:1~2)라고 고백했다.

하용조 목사님은 “시련을 만날 때 역을 하거나 우연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견고 있다는 증거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이 보지

못한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가시에 찔리고, 돌에 넘어지고, 역을 당하고, 곧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아도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가슴에 품고, 고난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간다고 하셨다.

60대 이후 노년기의 삶과 장로의 길은 어떠해야 할까? 부와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명예를 찾아야 한다. 부와 권력은 한시적이지만, 사람과 명예는 항구적 초월적이다. 공감과 소통을 이루고,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갖추어 삶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포용과 화평케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닐까 싶다.

안요한(81세) 목사님은 30대에 맹인이 되셨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야!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오느라 수고했다”며 고난을 삼켜 버리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듯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다. 시련이 또 오면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도록 하고, 만족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충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라 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의심이 없어진다. 의심이 없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참 인생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삶이 외롭고 참아내기가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위안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공기는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어디엔가 갇힌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존재한다. 슬픔은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 줄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멈추기 시작한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따뜻한고 더 멋진 세상이 열릴 것이다.



김인덕 권사
(분당B공동체)

마리아행전은 언제나 그렇듯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회다. 올해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설 수 없는 때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힘겹게, 그러나 힘차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올해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서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다. 그 뜨거운 집회를 마치고 <소망의 힘> 기도책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작년에 했던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하루에 2번씩 3분 동안 기도하기)이 부담 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망의 힘> 기도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건 왜 이리 길지, 이 길 언제 다 외워서 기도하나’라는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다. 그냥 하던 대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도책자를 덮었다. 그러나 곧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를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예정된 수술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어려워 병실에 덩그러니 혼자 누워 있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외로움이 찾아왔다. 그러다 문득 <소망의 힘> 기도책자가 떠

올라 기도문을 읽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혼자 지루했기에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 컸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소망의 힘> 기도책자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정치, 차세대, 북한 등 많은 기도문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 기도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큰일을 하는 사회인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대외적인 여러 영역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소망의 힘> 기도책자를 읽으면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 분야에 관심조차 없었던 나의 무지함과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 요즘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각 영역별 기도문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종할 때 큰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홀로 있던 외로운 입원기간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 그 덕분에 이 시간을 평안하게 지내게 된다.

기도문을 읽는 것이 적응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무시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았다. 요즘 나는 매일 밤 8시 20분이 되면 <소망의 힘> 기도책자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민족의 소망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나이다.

2학기 특강 강의소개

행복의 조건



김지훈 장로
(여의도공동체,
한국뉴복음주의대
경영학과장)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2030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80%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만약 크리스천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크리스천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말씀을 따라 살 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193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다. 주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것이다. 1938년 당시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연구대상자 절반은 하버드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고, 나머지 반은 보스턴 지역 빈민가에 살고 있는 20대 들이었다. 연구진이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가족, 친구, 공동체와 연결이 잘 되어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 고독은 매우 해롭다.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일수록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기능도 더 일찍 저하되며

수명도 짧다.

둘째, 인간의 행복은 결혼했는지 여부나 친구가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80대에 행복한 사람들은 50대부터 부부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세월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애착이 잘 된 사람들은 힘들 때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뇌가 더 건강하고 기억력도 더 오래간다. 반면 주위 사람들이 의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기억력 감퇴를 보인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개선에 있다.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한 노력에 있지 않다.

필자가 수년 전부터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경영학 교수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책도 쓰게 되었나”는 것이다. 나도 결혼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공부와 연구, 강의에만 열심이었던 관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수년 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공감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공감에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더불어 나의 관계문제도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상담을 공부했고, 공부하면 할수록 관계훈련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되었다(계속).

2학기 특강 ‘공감과 소통’
일정: 9월 11일~10월 2일
강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업로드
유투브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문의: 02-3215-3532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느헤미야는 비둘기처럼 순결했고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4-5절).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왕은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지 모리슨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전보기도’라고 하고, 어떤 분은 ‘화살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순간 세상의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매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6절).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완전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 21:1).

히브리어로는 ‘붓물’이라는 뜻의 ‘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서 농지로 물을 대는 관개용 수로를 말합니다. 이 수로로 물이 지나가듯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철학과 이념에만 휩쓸려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

미야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유대의 감독으로 파견되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재료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 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재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7-8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했고, 계획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계획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적인 죄와 욕심에 근거한 계획을 자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믿음의 기도 속에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계획, 실력,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안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게으른 것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할 때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구하고 계획한 것에서 넘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느헤미야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군대 외에도 군대 장관과 마병, 군사력까지 더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십니다”(엡 3:20).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을 공급하십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손길로 재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온통 위기처럼 보입니다. 상점의 문이 닫히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원통함과 안타까움과 위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은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으로 세워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시면 변화됩니다. 태산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이 함께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재난 한복판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슬픔을 품고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참담한 현실을 품고 슬픔 속에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깊은 산골마을에 전해진 예수님 이야기

안녕하세요? 중동 A국에서 온누리교회 가족들께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의 홍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동 A국은 6-8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 파악 및 통제가 이미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교는 9월에 개학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A국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B도시 산골짜기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두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국도로 달리다

가 내비게이션에도 표시되지 않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제 핸드폰 전파가 끊어졌습니다.

원래 B도시는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산 아래 형성된 수도입니다. 산 높이가 백두산보다 약간 낮습니다. 저희가 초대받은 곳은 산의 중간 이상 높이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우리를 초대한 이들이 지하수로 논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한 논밭의 넓이가 무려 15km²나 됩니다. 사방에 딸기 밭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무르익은 딸기를 따왔습니다.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두, 오이, 무화과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도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딴 딸기를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이를 따왔습니다. 오이도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련하였습니

다. 식사메뉴는 가장 질이 좋은 염소고기 바베큐였습니다. 염소고기는 매우 부드럽고 맛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등 밭에서 직접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 그리고 할아버지의 조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과 손녀는 복음을 전한 이후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족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고 있노라니,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희생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딸이 많은 할아버지의 아들 K가 회교의 희생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성경의 사실과 달랐지만, 저희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K

는 아무런 답도 못하였습니다. K가 잠시 침묵하는 동안 저는 희생절의 유래와 마지막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반발하지 않고 복음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별 반박 없이 잘 듣고 있었습니다. K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원해서 죽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시골의 온 가족이 예수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일꾼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깊은 산골 마을에 주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또 오리라는 소망을 품고 땅거미가 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온 가족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온누리교회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 김순중, 천사랑 선교사 (중동A국)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메시지

POST COVID-19 GLOBAL MESSAGE

우리의 삶을 바꾼 코로나19 바이러스,
글로벌 말씀 시리즈로 새로운 일상 속에서 소망을 전합니다.

크레이그 그로셸
Craig Groesch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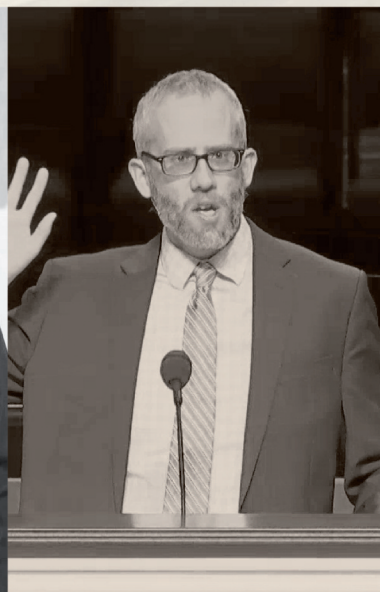
라이프처치 담임목사
[‘YouVersion 무료 성경 앱’ 개발]

카일 아이들먼
Kyle Idleman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처치 담임목사
[‘팬인가 제자인가’ 저자]

케빈 드영
Kevin DeYoung



크라이스트커버넌트처치 담임목사
[미국 TGC 이사장]

데이비드 플랫
David Platt



맥린바이블처치 담임목사
[‘래디컬’ 저자]

매주 목, 금 오후 10시 방송

CGNTV 시청 안내

I P T V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케 이 블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정 기 후 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문 의 02-796-2243